

창립 5주년 기념행사 인사말

2004.12.6. 6:30~8:30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성재단의 창립 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것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 신경을 쓴 부분은 시간 관리였습니다. 그럼에도 인사말이 예년보다 약간 길어질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5년 전 재단 출범 당시의 발족 제안자들,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모시고 싶었습니다.

초청장을 살펴면서 모두가 바쁘신 분들이라 참석을 기대하지 못했는데 1999년 봄 재단 설립을 위한 첫 자문을 주셨던 강원룡 목사님을 비롯해서 재단 설립의 동력이 되었던 여러 분들이 함께 하여 주셔서

또 하나의 5년을 이어나갈 힘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지난 5년간의 활동상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늘 부족하다는 자책을 해오고 있었는데 되돌아보니 그래도 최선을 다한 흔적은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더 자세한 활동내용은 여러분 앞에 있는 5년간의 활동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활동 보고서에서 간추리고 있는 업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추진위원회, 이사회, 각 위원회, 운영위원회의 변뜰이는 좋은 생각이 넘치는 임원들, 재능과 시간을 필요한 때 언제든지 내어준 홍보대사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여준 20여만 명의 기부자들, 일을 맡아서 헌신적으로 수행한 파트너 단체의 활동가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출해 낸 실무자들,

이 모든 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오늘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것이 눈부신 업적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오는 5년간의 재단발전의 터전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는 기금모금과 지원 사업입니다.

창립당시 인구의 반이 여성이기에 기금목표는 적어도 1000억 원은 되어야 한다고 세상을 놀라게 하였으나 20여만 명의 평등 지킴이들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해낸 기금은 현재 목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80억에 불과해 아쉽습니다.

IMF 사태의 후유증과 날로 악화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재단이 모금활동을 적극 전개하기를 주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여성을 위한 일에 선뜻 기부하는 분위기가 아닌 데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할 때처럼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마술이 여성들을 돕는 일에는 아직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의 모금활동은 그 자체로 여성의 열악한 현실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려는 여성들의 새로운 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 사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 지난 5년간 소외계층 여성을 돕고 평등세상을 만드는 일에 18억 원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파트너 단체들이 성실히 수행해온 214개 사업을 지원해 온 것입니다.

이 단체들의 명단을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수행한 사업내용과 성과는 재단이 사업종결 후 해마다 발간하고 있는 지원사업보고서에 실려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야말로 재단의 존재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격려하는 뜻으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파트너 단체들과 함께 한다는 재단의 초기 Mission을 꾸준히 그리고 묵묵히 지켜온 결과

언제부터인가 재단의 존재이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성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이들은 창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며 재단의 문을 스스로 두드리는가 하면

파트너 단체들은 재단이 존재하고 있어서 걱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할 만큼 재단이 성장하였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러한 기대들의 내실을 다지는 일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말 ‘딸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만들어주자’는 사명을 갖고 여성을 위한 최초의 재단으로

그리고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 출범해서 지난 5년 동안 여성의 차별과 소외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여성들도 동등한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는 한편

이 나라에 투명하고 명예로운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며 이 일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제도개혁에도 앞장서 오고 있습니다.

이제 탄생 6주년을 맞아 향후 5년간의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펴야 하는 시점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미래의 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고민하며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자기성찰을 통해 결론에 도달한 것은 새로운 비전설정이 아니라 이미 선포한 비전의 실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제 발굴은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찾아내기 힘들 만큼 되어 있으며

미래를 위한 비전도 현실성이 결여된 채 앞서고 있어서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어떤 이가 말했듯이 우리가 아담과 이브에게로 돌아가기 전에는 새로운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성재단도 이러한 사회현상에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일들의 내용을 중심으로 돌아가서 알차게 추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 오는 5년간 ‘제도약 2010 딸들에게 밝은 미래’라는 기치 아래 종래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평등세상 만들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향하면서

앞으로의 지원 사업은 21세기가 요구하는 각 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해서 육성하여 국내에서 또는 국제사회에서 당당하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글로벌 여성 Leadership을 키워나가는데 힘쓸 것입니다.

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선 이번 기념행사에서 '미래포럼'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미래포럼은 기업의 CEO들과 여성계 지도자들로 구성되며 우리 사회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으로서 여성지도력 양성에 필요한 기금도 마련하게 됩니다.

포럼에 참여를 허락하고 오늘 참석하여 주신 회원들과 이 일의 성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내어주시고 수고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포럼의 성과에 따라서 이 나라 여성계와 건강한 사회의 판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기대를 갖습니다.

이렇듯 앞으로의 재단의 활동은 영구기금모금보다는 사업별 지원금 모금에 보다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2년째 추진하고 있는 '짧은 여행 그리고 긴 호흡'이라는, 박봉과 격무로 소진된 여성 활동가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이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미래포럼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사업들을 개발해서 기부자와 사업수행자간의 교량역할을 재단이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5년 전 1999년 12월 6일 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열의와 성의 그리고 야심찬 결단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재단이 도달해야 하는 갈 길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옮길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여성단체와 여성재단이 필요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를 향해 재단이 걸어가는 걸음마다에 더 많은 평등지킴이들이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의 발전을 기원하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가름합니다.